

록히드마틴 무인 F-16 연구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는 F-16기를 바탕으로 하는 무인 전술 항공기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써 비행중 자동 재급유 장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무인 전투용 항공기(UCAV)에 대한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해 F-16의 개량이 검토되고 있다.

F-16기를 기본으로 하는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방어기로서 큰 날개와 conformal 연료탱크 그리고 전술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초음속 미사일이나 크루즈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휴즈 AIM-120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것이 연구되고 있는 개념중 하나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록히드마틴사는 실제 시범 및 초기 작동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현재 창고에 있는 F-16을 개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방어기는 완전히 새로운

UCAV을 개발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동사는 또한 스텔스 기능이 있고 꼬리날개가 없는 전투기의 디자인을 작고 민첩한 UCAV기로 개량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사는 최대 관심사는 UCAV를 이용하여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CAV F-16기는 일반 F-16기에 앞서 방공망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다. UCAV의 조종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지만 다른 항공기가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 중인 개념에 따르면 개량된 F-16은 공중 재급유를 받기 전까지 9시간 동안 공중에 머무를 수 있으며, 동사는 공중 재무장 개념도 연구하고 있다.

유로콥터 흑자로 전환

독일-프랑스 헬리콥터 그룹인 유로콥터사는 4년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던 끝에 지난 96년에는 흑자를 보였다. 228대의 민간 및 군용 헬리콥터에 대한 주문을 수주했으며 금액으로는 22억 천만 달러에 달하며, 95년에 비해 75%나 증가한 수치이다.

유로콥터의 회장 Jean-

Frans is Bigay는 올해에도 안정된 기조를 예상하며 93억 프랑의 매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군용기 주문은 64%를 차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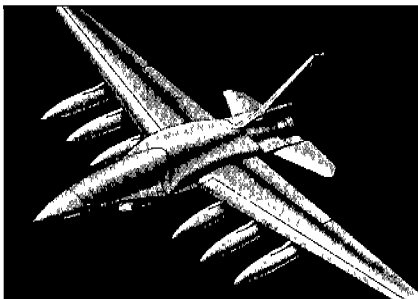
Bigay는 타이거 공격용 헬리콥터 확보를 위해 벌이고 있는 정부간 조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허가 결정이 난다면 양 국가는 각각 80대를 주문할 것이며 동 헬기의 인도는 2001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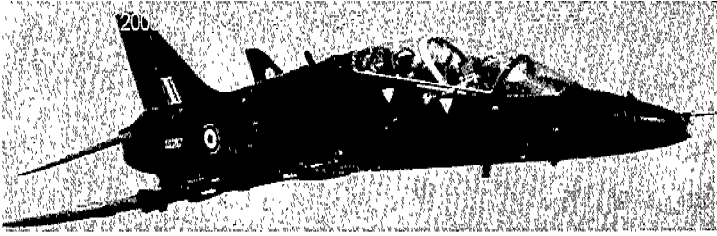
유로콥터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NH90 다목적 헬리콥터의 경우 재정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동 헬기의 인도를 2011년까지 연기하겠다는 동사의 결정이후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가 자금지원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7억 프랑에 달하는 자금 부족 분은 실질적으로 자체 조달하고 있다고 유로콥터사는 밝혔다.

영 공군 호크 훈련기 사용 연장 고려

영국 공군은 브리티쉬 에어로스페이스(BAe)사가 제작한 호크 훈련기에 대한 수명 연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BAe사도 역시 시급한 요구사항으로 디지털 콕



조종사 없이도 비행이 가능하게 될 F-16



핏에 맞는 엔진으로 교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70년대 후반에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 호크기는 2008년부터 교체될 예정에 있다. 영국 국방부는 "일부의 의견은 호크기의 수명 연장 계획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트 훈련기(NJT)'에 대한 꾸준한 연구의 결과로 BAe사는 호크기 개량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Ae사는 일찍이 90년대 초반부터 호크기를 대체할 수 있는 NJT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추구해 왔다.

동사의 소식통은 미래의 훈련기의 요구사항으로 호크기의 기체를 이용하면서 항공전자장비 및 콕핏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엔진으로는 몰스로이스나 Turbomeca Adour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호주 공군에서는 ITEC의 F124 엔진이 lead-in 전투기로써 호크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Adour 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지 아니면 F124 엔진을 채용할 지에 대한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터키 유로콥터 쿠거 헬기 30대 계약

터키 정부는 지역 생산에 대한 동의와 함께 30대의 유로콥터 쿠거Mk1 구매에 대한 계약에 서명했다.

4억3천4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동 계약은 93년 말에 주문했던 20대를 채우게 되는 10대의 육군용 AS532-UL과 공군에 의해 운용될 민간 및 전투 상황에서 쓰일 수색 구난(SAR) 헬기 AS532-AL 20대를 다루고 있다.

유로콥터사는 이번 계약이

EUROTAI로 불리게 될 터키의 투사스 에어로스페이스 인터스트리(TAI)와 유로콥터의 컨소시엄으로 가는 길을 닦게 되었다고 말했다. TAI사는 나중에 가서는 동 컨소시엄의 일원으로서 동 헬리콥터의 기체 제작, 조립, 합격 판정 시험을 맡게 될 것이다.

이 계약 하에서 많은 유로콥터의 하청업체들이 터키의 업체와 연결될 것이다. 프랑스가 제작하는 최초 2대의 쿠거는 99년에 인도될 것이며 나머지는 99년에서 2002년에 걸쳐 TAI사의 조립 라인에 나오게 될 것이다.

앙카라에 본부를 둔 TAI사는 51%가 국가 소유이며 나머지는 록히드마틴사가 소유하고 있다. 동사는 또한 유로콥터와 터키의 세력권 내에서의 공동 판매 협정에 서명했다.

유로콥터는 최근의 이러한 협정이 터키가 "타이거/NH90 사업에서 미래의 정부 조달 사업의 일원으로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터키가 유로콥터를 선호하고 있다는 증거이다